

박근혜정부, 경제·안보·민생 챙기기 '젠걸음'

정부조직법 최종 타결...향후 정국 전망

신설 미래부·해수부 등 조직 구성 시급 현오석·김병관 임명 문제 '뜨거운 감자'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21일 만에 국정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부터 국정운영 구상을 실현하는 작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 안보, 국민안전을 포함한 민생 부문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만큼, 이들 '3대 축'을 중점적으로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정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규 조직개편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에 임명된 13명의 장관 외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이들 두 부처가 각각 경제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와 안보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부처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관건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새로 신설되는 부처의 조직 구성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이들 두 부처의 경우 장관의 인사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만큼 해당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박 대통령이 고수했던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국정 운영을 어떻게 조속히 정상화하는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등장했다"며 "특히, 경제부총리 및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 야당의 반발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협상 타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의 개입을 막기 위해 협상 도중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지휘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 타결 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법"이라며 "대통령의 철학을 가급적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案)을 대부분 관철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매개로 검찰 개혁, 4대강 사업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의 국정조사 추진 등의 실리를 얻었다는 평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필뉴스

호남 민형중(광주)·박형수(화순) 고작 두명

부산·경남 5명, 대구·경북 4명 등 '영남잔치'

박근혜정부 17개 외청장·금감원장 인사 들여다보니

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장도 호남 전멸

청와대가 지난 15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첫 행정 각부 17개 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인사는 영남 잔치로 끝났고 호남 출신은 두 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4대 권력기관장'에 영·호남 출신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호남인들을 좌절하게 했다.

◇영남 '우대' 호남 '홀대' = 전체 18명 중 부산·경남(PK) 5명, 대구·경북(TK) 4명 등 영남이 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충청은 4명이었으나 호남은 2명에 불과했다. 서울도 2명이었고, 경기도는 1명이었다.

호남 인사는 민형중(광주) 조달청장과 박형수(화순) 통계청장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국대가 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는 12개의 대학에서 1명씩 배출했다. 그러나 동아대·경상대·영남대·경북대 등 영남지역 지방대학이 각 1명씩 외청장을 배출한 데 반해 호남의 지방대학에서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 또 내부에서 승진한 사례는 9명에 달했다. 그간 외청장은 상위 부처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행정고시 출신이 8명, 사법시험 출신이 1명 등 고시 출신이 절반에 달했다.

◇4대 권력기관장도 호남 전무 = 이날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이 내정되면서 국정원장을 포함한 4

대 권력기관장의 인선이 모두 끝났다. 결과는 국정원장 남재준(서울) 내정자를 포함해 서울 출신이 3명, 대전 출신이 1명이었다.

이를 놓고 박 대통령이 지역안배보다는 전문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있으나 예초 선거 기간 중 호남 민심을 겨냥해 '대통합과 대량령'을 강조했고, 당선 이후 '호남 총리론'까지 부상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번 인선은 대량령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덕이 윤창중 대변인의 설명은 화가 난 호남 민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윤 대변인은 "지역안배" 관련 질문에 "채동욱 내정자는 서울 출생이지만 아버지가 5대 중순으로 선산이 전북 군산에 있고 매년 선산에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얘기도 있다"며 "지역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직책	이름(나이·출신)	현직	학력
검찰총장	채동욱(54·서울)	서울고검장	세종고·서울대·사시24회
국세청장	김덕중(54·대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대전고·중앙대·형시27회
관세청장	백은찬(57·경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진주고·동아대·형시24회
조달청장	민형중(55·전남)	조달청 차장	광주제일고·한국외대·형시24회
통계청장	박형수(46·전남)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광주동신고·서울대
병무청장	박정명(63·경남)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진주고·경상대·학군12기
방위사업청장	이종길(56·부산)	국방부차관	경기고·서울대·형시23회
경찰청장	이성현(57·서울)	부산경찰청장	충익고·동국대
소방방재청장	남상호(60·충북)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대우교수	청주상고·동국대
문화체육관광	변영섭(62·경북)	고려대 고고미술 사학과 교수	안동여고·이화여대
농촌진흥청장	이양호(54·경북)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영남고·영남대·형시26회
산림청장	신원섭(54·충북)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운호고·충북대
중소기업청장	황철주(54·경북)	벤처기업협회공동회장	동양공업고·인하대
특허청장	김영민(55·경북)	특허청 차장	합천고·경북대·형시25회
기상청장	이일수(57·경남)	기상청 차장	기장중학교·공시29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종재(58·경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용문고·빙송대
해양경찰청장	김석익(48·경남)	해양경찰청 차장	진주명문고·한양대·형시37회
금융감독원장	최수현(58·충남)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서울고·서울대·형시25회

(자료·청와대)

이에 대해 민주당 김정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변인의 발언은) 껀변과 변명"이라며 "대통합이 무슨 떡 하나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역안배가 없으면 없는 것이지 무슨 호남을 들먹거리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러니 대통합을 진심으로 이해할 소양도 없고 철학도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기정 '당권'·황주홍 '최고위원' 도전 이번주중 나란히 출사표

민주통합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이 이번 주중 각각 당권과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한다.

강기정 의원은 5·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 참여와 관련,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당권 도전 선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오는 20일 당권 도전 선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이 출마 선언에 나섬에 따라 같은 광주 출신이자 당권주자인 이상섭 의원의 단일화 여부도 관심사다.

황주홍 의원은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번 주 초 최고위원 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을 만들

어 호남 민심에 더 이상 눈물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권 도전 선언을 한 이상섭 의원은 17일 "이번 전당대회를 '혁신전대'로 만드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대는 주류, 비주류 간의 '계파전대', '세력전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민주당 초선의원 33명이 낡은 계파정치 청산과 민생 우선의 정책정당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갑사와 존경을 보낸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의 회견은 비주류 당권주자인 김한길 의원을 견제하면서 초선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달초 검·경 고위직 인사...호남출신 거취는

소병철·주철현·김현웅 주목 서울청장, 강경량·김정석 관심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와 장·차관 인사는 물론 4대 권력기관장 인사에서도 호남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그나마 남아 있는 호남 인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총장과 청장이 각각 임명된 검찰과 경찰 상층부에는 호남지역 인자들이 상당 수 있어 이들이 핵심요직에 갈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검찰총장에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검장이 내정되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절차가 완료되면 내달 초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검사장직 축소 공약과 맞물려 대대적인 세대교체와 주요 보직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채 내정자와 막판까지 경합한 순천 출신 소병철 대구고검장, 여수 출신의 주철현 대검 강령부장 등을 비롯한 15기의 거취가 일단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검장이 되지 못한 나머지 15기와 광주 출신인 김현웅 광주지검장 등 16기 선두주자 등이 고검장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사태대상이 지금의 검찰총장 내정자

와 같은 14기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15기가 상당부분 포함되는냐에 따라 인사 폭도 달라질 전망이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륜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총장과 청장이 각각 임명된 검찰과 경찰 상층부에는 호남지역 인자들이 상당 수 있어 이들이 핵심요직에 갈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지난해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치안정감 중에서 이 내정자의 보임 연도가 가장 늦어 치안정감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 인사 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승진한 이 내정자와 거취를 정리할 수 없는 이철규 전 경기청장 소 공약과 맞물려 대대적인 세대교체와 주요 보직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채 내정자와 막판까지 경합한 순천 출신 소병철 대구고검장, 여수 출신의 주철현 대검 강령부장 등을 비롯한 15기의 거취가 일단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치안감인 장흥 출신 안재경 광주청장, 광주 출신 전석조 전남청장 등이 치안정감에 오를 가능성도 높다. /윤현식기자 chadid@연필뉴스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남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정사건리점)

금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 뷔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금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오지동 대지 330㎡ 건물 73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매매가 7억9천만원 1억5천만원, 용지 1억5천만원

◆상가매매◆
•신용동 철민2지구 110㎡ 월수익400만원 매매가 8억2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 용지4억 원 이명통신점 임대예정)
•신용동 철민2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4억 원

분양
•용두동 철민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m5544만원 매매가 2억9천만원
•용두동 철민2지구 1100여세대배후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m당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분양가능

상가임대
•신용동철민2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3층 보증금3000/월140만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매상구역)
•신용동철민2지구 호반주출입구 앞 132㎡ 4층 보증금3000/월120만원(대건도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 매상구역)

상가주택매매
•신정동 하남2지구 1층점포2칸, 2층 투스리플37개 3층복층인실 월수익550만 07'9'33천년
•월전동 흥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06'9'11년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상권)

경매비법

▶배우면서 투자가능
▶실제 낙찰사례 스테디
▶1인1물건 추천
▶주1회, 3개월 완성
▶수강료 550만원

(주)오현정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